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5년 여름 | 10호

특집 새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탐방 팬아시아 중이박물관을 찾아서

유물사랑 마파도와 조몬해 돌깃대 | 답사를 다녀와서 삶과 죽음이 뒤섞인 갠지스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우리의 문화재 애호심은 영점

전시실 산책 봄, 여름 그리고 늦은 가을 - 檀園大展을 보고

학술발표요지 6~7세기 동아시아 조각양식의 전파와 공유(2)

강의를 들으며 절반은 즐기고, 절반은 듣고 | 기증유물 한국박물관회 문화재 기증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七夕

까치야 까치야 다리를 놀까?
견우도 직녀도 다 어디 갔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지만,
三八선에 은하수, 칠석 은하수
미안해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까치야 까치야 다리를 놀까?
만나는 다리 놓던 재주라며는
기다리는 다리도 놀 수 있겠지.
까치야, 배가 흰 우리 까치야.
한 백년 더 기다리는 다리나 놀까?

서 정 주 (1915-2000)



살아 있는 역사의 寶庫

2005년 10월 28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시대의 역사적인 서막을 여는 날이다. 덕수궁, 경복궁, 중앙청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시절을 마감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남북으로 훤히 트인 열린 마당은 앞으로 전개될 복합문화 공간의 대문 구실을 하며, 하늘까지 담고 있는 거울못은 닦고 비추어보는 문화의 의미를 새겨보게 할 것이다. 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본지는 두 번에 걸쳐 달라진 박물관의 모습을 미리 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이번 호에선 박물관의 설계와 건축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은 세계문화의 맥락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役事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협력단체인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공인을 받아 1994년 국제설계경기로 시작되었다. 전 세계 건축가들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현상 공모하여 46개국 341(국내78, 외국263)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위원은 국내 3명, 외국인 4명으로



열린 마당

구성되었다. 심사는 작품의 전체적인 개념, 건축형태, 기능성 등을 특히 고려하였으며,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정림건축(김정철)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당선작은 敷地여건을 잘 이해하고 건물을 적절하게 배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건물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지형과 원경을 활용하여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향과 背山臨水 지형을 명당으로 여겨왔다. 용산은 서울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박물관이 들어서면 뒤에는 남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른다. 미군시설이 완전 이전될 경우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어서 박물관 부지로 적당하다. 低濕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지반을 평균 4m 정도 올려서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였다. 또 국철 및 지하철역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앞으로 남북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진다면 전통문화의 본산이 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영역과 공공 및 교육영역을 잘 분리해주는 등 명쾌한 기능 처리가 강점이다. 길고 직선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건물 정면이 시가지를 향하고 또 하나의 면은 공원을 향하여 새로운 복합문화단지의 시발점이 된다. 주차장, 접근로, 서비스 공간 및 기타 부수적 요소 등도 잘 배치되었다.

이 작품은 국제설계경기에서 많은 외국 작품과 겨누어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 기술과 건축가의 위

상을 높였다. 한편으로는 한국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정신은 자연과 인공과의 절묘한 조화에서 구할 수 있으며 화려한 수식이나 섬세한 치장을 거부한 대범한 단순성에 있다고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향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건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업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지면적 9만 2천여 평, 연면적 4만여 평이며 사업비 4천여 억 원, 10여년의 사업기간에 걸친 대공사이다.



길이 404미터, 가장 넓은 폭이 150미터의 크고 웅장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규모로 보면 세계 6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박물관의 구조는 동선처리에서 탁월한 핑거(finger)형 배치로 되어있다. 이는 손바닥 역할을 하는 '열린 마당'을 통해 양쪽의 건물을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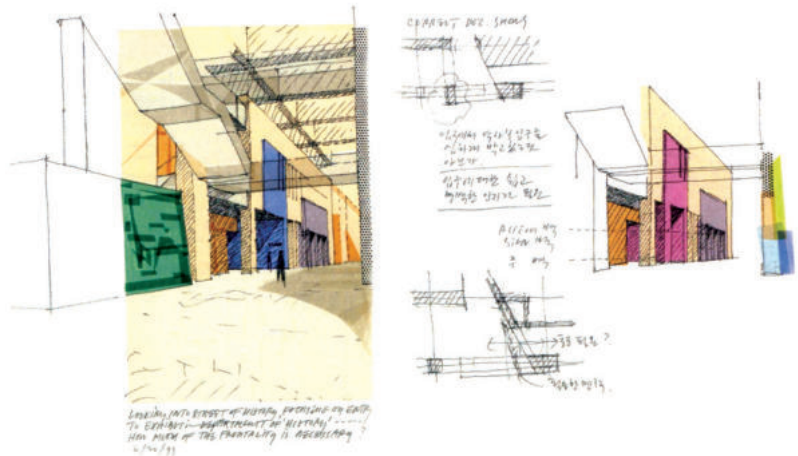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긴 일자형이며 '열린 마당'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다. 한옥의 대청마루를 형상화한 이곳에 올라서면 남산이 먼저 반긴다. 東館

에는 전시실이, 西館에는 극장, 강당, 사무실, 교육 공간 등이 있다. 동·서관이 층수를 달리하는데 이것은 전시 공간인 동관의 천정이 높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수장고가 지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수장고가 지하 깊숙이 있을수록 안전한 것으로 여겼으나, 지하는 환기가 어렵고 수재를 당할 우려도 있어 지상에 자리했다. 전시실은 '역사의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뉜다. 1층에는



역사의 길

고고관과 역사관이, 2층에는 미술 1관과 기증관이, 3층에는 미술 2관과 동양관이 있다. 박물관 설계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動線처리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야 나갈 수 있는 동선몰이식이 아니다. 하나의 전시실을 관람 한 후 다음 장소를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선이 길지 않아 관람 중 '역사의 길'로 나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서관은 6층으로 공연장, 사회교육시설, 어린이박물관, 기획전시실과 전문식당 등이 있어 문화를 즐기며 휴식도 할 수 있다. 또 장애인, 노약자 들도 불편함이 없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 지하에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었다. [M선](#)



역사의 길 개념 스케치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능이 이전의 유물 보관과 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배우는 장소로 확장되면서 공간도 전시실 중심에서 크게 달라졌다.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극장과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실 등이 갖추어졌다. 우선 4백석 규모의 대강당은 국제 세미나도 가능하도록 4개 국어가 동시통역되는 시설이 마련되었다. 또 2백석 규모의 소강당과 일반 강의실 3곳, 그리고 전기 가마가 마련된 도자기 실기실을 비롯해서 염색 실기실, 그리고 천정이 높아 큰 규모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화 실기실 등이 들어섰다. 어린이 박물관을 따로 만들어서 학습의 장이 되도록 했는데 여기엔 전시실, 체험 학습실, 영상실, 도서실 등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8백 여석 규모의 극장이 있다는 점이다. 박물관이란 주로 낮 동안만 찾던 곳인데 극장에서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박물관은 밤낮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도 보고 실습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된다. 이를 위해 두 곳의 전문 식당을 포함해서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카페 3곳, 그리고 편의점 등이 있어 즐겁게 관람하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정도 이상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도 모든 안내 표시를 점자로 했다. 화재가 났을 때 빛이 깜박거리어서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 스트로브 장치를 하여 청각장애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박물관의 모든 공간은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한 시설이다. 그런 점에서 방범과 화재 등 재난 방지 설비는 최첨단으로 되어 있다. 우선 구조면에서 내진 설계의 경우, 아직 서울에서 기록되지 않은 지진의 강도인 규모 7에도 견딜 수 있다. 건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지만 구조적으로는 4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지진이 일어나도 크게 손상되지 않게 완충공간을 두었다. 주요 유물은 면진대를 설치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했으며, 유물을 바닥에 접촉시키는 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해 전시하는 방법도 쓴다. 또 바닥의 荷重은 평방미터당 1톤 이상을 견디도록 해서 유물을 옮길 때 자동차가 지나들어도 버틸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역사의 길'에 경천사 탑을 복원할 때 박물관 안에까지 트럭과 크레인이 동원되었다.



수장고

도난과 화재 방지는 박물관의 생명과도 같아서 첨단 시설로 여러 겹의 안전을 확보한다. 한 예로 수장고까지 가려면 6군데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CCTV 와 감지기 그리고 카드키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카드키 시스템은 중앙 제어 장치를 통해 누가 언제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가 기록된다. 박물관 직원도 각자 담당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나뉘며 특히 수장고에는 정해진 직원 이외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전시실 진열장 유리 또한 안전을 위해 중간에 필름을 접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강당

화재 방지를 위해선 일반 감지기 보다 천배 이상 민감한 고감도 감지 설비를 갖추었다. 수장고를 비롯해서 전시실, 보존 과학실 등에 설치된 감지 시설은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늘 측정해서 화재의 기운이 감지되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다. 특히 화재는 초기 대응이 최우선이며 전시실에서 물로 진화했을 때 생기는 유물의 손상을 우려하여 가스로 진화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전시실 내부의 공기를 뽑아서 화재를 막는 시스템인데 각 전시실마다 4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누어 작동한다.

이 밖에 박물관은 통신 등 건물 자동화설비도 완벽하다. 우선 내부의 공기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 밖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황사 등이 나타나면 유해물질을 필터로 거르는 장치를 마련해서 관람객은 물론 유물들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 개발의 시작점으로 해서 주위에는 각종 특색을 가진 박물관, 미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의 자랑거리이자 세계 수준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날을 기대한다. [M진](#)



도서실

뿌리 깊이 내리고 이상을 향해

새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떤 모습일까? 오랜 기다림 끝의 첫 대면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東西로 긴 사각형의 건물 외관, 첫인상은 다소 딱딱해 보인다. 일반 관공서와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스친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내리면 광활한 녹지공간이 들어온다. 공원 안에 세워지는 박물관이어서 관람과 여가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창출한다더니, 그것의 실현인가? 단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아직 어수선하다. 우리 산야에서 볼 수 있는 낮은 樹種과 화초들로 메워져 있다. 유난히 흰칠하고 잘생긴 소나무는 멀리 속초에서 온 金剛松이란. 관람으로 피로해진 몸은 푸른 숲이 누그러뜨려 줄 것이고, 휴식시간이 무료해지면 유물을 찾아 나서는 자연스러운 換置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음으로 발길을 끄는 곳은 커다란 타원형의 인공호수 '거울못'이다. 건물 앞의 물은 전통적으로 명당 요건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연못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물을 관람한다는 것

은 내면성찰의 시간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 모습을 비추어보고, 미리 마음을 추스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못의 주체는 물이다. 수중생물을 키우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굳이 배제한 이유가 여기 있다. 형태의 변화와 유무는 쟁까지, 애초의 설계안에서 관계기관의 수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다. 이만한 형태로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반듯한 타원형이 줄 답답함을 작은 동산으로 처리해 파격의미를 더했다. 언뜻 안압지의 동선을 따른 것 같기도 하다. 거울못은 연못가 식당 지하에 순환기를 갖추고 있다. 물은 구름문양이 새겨진 담을 타고 내리며 산소를 유입하고 옥외 공간 특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가장자리의 화초며 층을 달리한 낮은 나무들도 복잡한 도심으로부터 관람자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미처 연못가를 거닐 여유가 없다면 서편 광장에 서있는 키 큰 조명등의 영접을 받으면 된다. 밤에는 유도등처럼 환한 불빛으로, 낮에는 말쑥한 신사의

모습으로 마중한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 확 트인 광장이 나타난다. ‘열린 마당’이다. 지붕이 있으면서도 앞뒤로 훤히 뚫려 안이면서 바깥인, 한옥의 대청마루 같은 공간이다. 뒤로 보이는 남산은 우리 전통 건축의 중요 개념인 借景인 셈이다. 모든 방문객은 이곳에서 만나고 소통한다. 봄·가을의 단체 관람객까지 가능해서 확보한 넓이이다. 너무 넓어서 자칫 단조로와 보이는 바닥은 돌의 크기를 달리한 엷쌓기 기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빛의 반사를 줄이기 위해 화강암 사이사이 검은 마천석을 섞었다.

장방형의 화강암 건물은 확실히 권위적인 분위기를 표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문화의 상징적인 건물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당선작을 보고 한국적이



지 않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살살이 뒤져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알고 싶어하고 찾아서 보려는 사람에게게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 거울못에서 건물로 오르는 길은 한국山城의 성벽 모습과 흡사하다. 멀리서 보면 박물관이 성곽에 둘러싸인 형상이다. 그리고 ‘Future Wall’이라는 성의 동쪽 앞면에는 다양한 한국적인 모티브가 표현되어 있다. 수원성의 전돌 벽면 쌓기가 내용의 시작이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의 목재 외벽 모습도 보인다.

그 위에는 주로 바닥에 깔거나 쌓기만 했던 전돌이 지붕처럼 마름모꼴로 이어져 얹혀 있다. 전통적인 재료를 현대적 개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무엇보다 우수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자랑거리를 뽑으라면? 바로 우리의 한글이다. 화강암 벽면에 훈민정음 원문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원 설계안에는 토기에서 차용한 빗살무늬로 다음 벽면을 마감하려고 했다.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해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던



Future Wall



다. 대신 단조로운 입면에 돌의 재질과 색감의 변화를 이용해 성벽을 형상화했다. 전통적인 성벽 쌓기 기법으로 아래는 묵직한 느낌을 주고 위로 날렵하게 뽑아 올렸다. Future Wall의 맨 꼭대기에는 요철형태의 조망벽이 길게 세워져 박물관이 유물을 보호하는 城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해보자. 동관 입구의 원형공간 '으뜸홀'은 박물관 전시실의 관문이다. 천정까지 그대로 뚫려있어 시원하다. 어디를 보아도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아 天衣無縫의 경지이다. 전시실의 중앙복도인 '역사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어쩐지 텅 빈 듯한 느낌, 여백의 미가 이곳의 컨셉이다. 호텔이나 백화점과는 사뭇 다른 전시와 관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의도된 단순함이다. 관람자의 관심이 유물에게만 쏠리도록 배려하는 마음이다. 미색의 대리석은 바깥의 화강암에 비해 온화한 분위기를 준다. 건물 안인데도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의 길' 천정을 통해 유입된 자연채광 덕분이다. 특수유리를 부착해 유물

에 해로운 자외선은 걸러내고 눈이 편안해하는 부드러운 빛만 불러들였다. 어느 전시실을 선택하건 그건 관람자의 몫이다. 조금해하지 않고 휴식과 더불어 즐길 수 있다.

사실 박물관 건물은 앞뒤의 구분 없이 설계되었다. 남산 쪽에서 보면 그 나뭇의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열린마당에서 출입구까지 내려오는 굽이치는 곡선은 남도의 돌담길 같다. 이곳에 복합문화공간이 세워지면 박물관이 중심지라는 개념이 완성될 것이다. 아직은 많이 낯설다. 새로운 곳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고향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낯을 익히는 데는 애정이라는 스펙트럼이 제일이다. 천천히 눈길을 맞추다보면 한결 친숙해 질 것이다. 건물도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무한히 성장할 수도 있다. 박물관을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N河](#)



으뜸홀

팬아시아 종이박물관을 찾아서

한 낮의 뜨거운 햇빛은 처마 끝에서 숨을 죽이고 다시 창호지에 걸려져 은근히 방안으로 스며든다. 가볍고 질기며 수명이 긴 韓紙는 우리 조상들의 일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 고즈넉한 사랑방에 앉아 묵향을 즐기며 蘭을 치기도 했고, 아낙네의 손끝을 거쳐 부채살에 붙이면 더위를 몰아내는 시원한 바람을 선사한다. 반짓고 리와 패물함, 나아가서 반다지 같은 훌륭한 공예품도 만들어 냈다. 이런 종이를 찾아 전주로 가 보았다.

1997년에 한솔제지에 의해 개관한 종이박물관은 2001년



大方廣佛華嚴經(국보277호)

팬아시아 종이박물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보 1점, 보물 7점을 포함한 종지와 관련된 20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실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특별 전시실, 한지 체험관으로 종이 이전의 시대부터 傳播,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 1전시관으로 들어가자 종이 이전의 시대를 혼돈으로 표현한다. 원형의 전시실은 암흑시대의 어둠을 나타내고 바닥에는 세계지도를 그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를 표시했다. 대표적인 문명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유물과 조형물, 디오라마 등 다양하게 전시했다. 특히 천정에 설치된 원형의 멀티슬라이드 영상을 통해 인류의 오랜 念願을 그렸다. 이 염원은 수많은 지혜의 기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종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집트 파피루스에 어원을 둔 페이퍼, 즉 종이는 진정한 역사시대의 개막을 가져왔다.

혼돈의 시대를 지나 탄생의 시대로 들어와 후한의 蔡倫이 제지술을 개량함에 따라 본격적인 종이 생산의 시대로 접어든다. 전파 과정과 더불어 원료의 변천과 제작기술의 발달사를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의 목판본 大方廣佛華嚴

經(국보277호)은 '絹五百 紙千年'의 좋은 예이다. 教旨, 지도, 부적, 낚을 위로하기 위해 바다에 띄운 낚전, 과거 시험 답안지, 관리들의 성적표 등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다. 특히 어사화가 종이로 만들어진 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한지를 꼬아서 만든 후 그 위에 문양을 그리고 칠을 한 화살통은 종이가 얼마나 질기고 실용적인지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곡식을 보관하는 채독, 지승그릇, 베개, 귀주머니 등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으며, 직접 만져 보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유물 인식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다.

제2전시관으로 가는 복도는 맑은 새소리와 은은히 풍기는 나무 냄새로 종이는 숲 속에서 온 것임을 연상시킨다. 오늘날의 종이는 기록 전달의 기능을 넘어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소재이다. 먼지 없는 종이인 무진지, 복사가 안 되는 IQ 200 종이, 평소에 빛을 저장했다가 어두울 때 발산하는 蓄光紙 등 다양한 기능의 종이가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생활 속에 사용되는 종이의 이색세계를 사진으로 전시해 놓았고 컴퓨터를 통해 여태까지 본 것을 재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컴퓨터 영상을 따라 종이접기를 하는 코너와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영한다. 안네 프랑크, 베토벤, 이종섭 등 당대에는 불행했지만 후세에 위대한 작품을 남긴 작가들을 통해 종이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특별전으로 교과서로 보는 생활상이 열려 개화기로부터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의 교과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지 체험관에서는 관람자들이 실제로 한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박물관을 둘러보며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종이,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이에 대해 새삼 그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돌아오는 길에 전통적 제작 기법으로 한지의 정통성을 지키며 내년 한지 박물관 개관을 앞둔 宋紙房을 찾았다. 전통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할 수록 그 가치가 인정되고, 물처럼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창의에 의해 전승 발전된다. 사라져 가는 전통 공예품을 현대 감각으로 재조명하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한지를 재현하는데 평생을 바치는 장인, 그 우직한 모습이 아름다웠다.

한 장 한 장 장인의 손끝을 거쳐 종이가 완성된다. 나무, 물, 바람, 햇빛이 한지로 다시 태어난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금산사를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아쉬움도 외길을 가는 장인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진다. [ㄹ리](#)



어사화

마파도와 즘은해 돌깃대



마파도(동백마을칠산앞바다의) (8모)정자

「마파도」로 뗏대. 이젠 「활동사진(영화, TV)」들로 뗏다하면 제 물려가는 명소가 된다. 「모래시계」의 정동진이 북새통이고 나아가, 일본아줌마까지 때로 물려오는 「겨울연가」의 남이섬이 그렇다.

그런데, 마파도(島)는 없다. 그런 섬은 없다는 말이다. 아니, 마파도는 아예 섬이 아니다! 요새 뜨는 말로 청남대를 대학, 몽고반점을 중국(음식)집, 윤선도를 섬, 행남(자기)사를 절이라 우기는 농담이 있다더니 바로 그 짝이다.

마파도는 없는 섬이고 더구나, 섬에서 찍지도 않았다.

한 시골 바닷가 작은 「고기잡이말」에서 섬이라 씌기고

찍었다. 바로 영광 백수(白岫)의 가파른 바닷가 「동백마을」에서! 글 쓰는 이는 안봤지만(한마디로, 과부섬에 들어온 영계남과의 얘기라나?) 그러나, 여기도 고기잡이마을이다보니 흠어미마을(모두 15집에, 13집) 해서, 마을회관 이름도 「여자노인정」!

백수(읍)에서 길이도 18~19Km인 끝~내주는, 굽이굽이 뽀시허리를 에워낸 바닷가길(77국도). 끝은 바로 법성포(法聖浦). 그 가운데에 그 동백마을 있어 마파도 바람 타는 중.

눈 다 못 가 이르는 시린 「칠산(七山)앞바다」 바라보는 「8모정」—황금비늘 마구 번뜩 쏘아대는(5,000만마리 조개!) 황금어장 그리며 지국총 지국총~ 어수와(至菊叢 至菊叢 於斯厥)~ 이름도 아름다운 「진다리섬[落月島]」은 또 어디 맨가(흥얼대~)며, 해넘이 노을(을) 지고 오르는 해당화꽃길—

굴속에서 소금에 재어(염장) 돌 놀린(4월중순) 말림법=「섞간」한, 「물굴비」 아닌 「5사리」의 알배기 「오가잡이」—참조기, 참굴비 영광굴비백반으로 안동소주와 겨루는 센 「불술[火酒]」 「법성토주(土俗酒)!(飯酒) 짜안~ 겹드려 벌떡 일어나는 힘 얻는[助氣, 早起]—아님, 백합죽(4~5월)이나 덕자찜(5~6월) 또는, 보리새우탕(6~7월)도 이름나니(점심)먹자고.

그러- 이제, 마파도 길에다 배도 부르니 슬슬 배도 꼬트릴 겸 건강 삼아 「묵은 불거리」 하나 보러 나서자—찬찬 꼼꼼시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니.

고을 입(고창 가는 23국도) 바로 밖이라 빠지며 스치듯 지나치(이)는, 오른 켄(영광병원 건너) 움푹 꺼진 터에서



돌깃대와 버팀대(영광읍 단주동)



도 우뚝 선(5m) 「유물」 하나.

영광의 문화재-유물사랑 속보이는, 논·밭 사이두렁 کن에 웅색하니 비
집고 서 있어 짝한—쳐놓은 울까지도.

바로, 깃대 그것도 「돌깃대(전남유형153)」다—아름드리 우람한(지름
62Cm)!! 옛 천작사(寺)란 절 앞에 선 것.

넓게 깎아 모죽임된 등직한 깃대(幢竿)가 돌받침 위에 서고 두 쪽 「버팀
대(支柱, 3m)」를 세워 붙였다. 모두, 굵은 재질 화강암.

깃대는 부러져 밀기둥치 하나만 남아있으나 올려붙임이, 작아도 3단은
더되어 10m는 훌쩍 넘었던 것! 제대로 된 돌깃대(石幢竿-8모마다:담양, 나
주-고려)나 「쇠깃대(鐵幢竿-대마디골:용두사, 갑사, 칠장사, 법주사-고려)」를
보면 말이다.

그리고, 그 끝엔 줄 다는 도르래가 달린 깃봉이 있어—용머리(풍기 금동용
두, 호암 용두보당, 중박 선각용두당간, 청주 용두사당간)나 구슬(寶珠, 연봉(나주,
담양)끝에다 아다시피, 불교·불법을 나타내고 뜻하는 여러가지 깃발(幢幡:
불보살그림, 글씨, 무늬치레들-쇠金屬나 수繡로도!)을 내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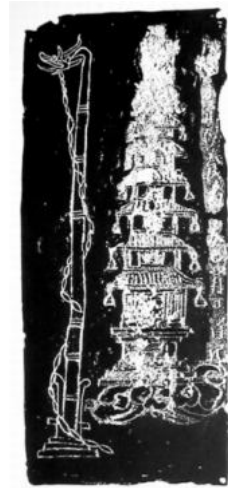
오랜 우리절 앞에 서서 「온(100)」개도 넘어오
는, 마주한 두 쪽 네모돌기둥(당간지주)들 모두
도 바로 이러한 깃대 버팀대로 「바깥나라」엔 결
코 없는 우리 자랑거리!

「호, 불여 영광(戶不如 靈光)」이라하여, (조선시
대에) 원님은 남도 영광이나 북도 안악으로 가

려할만큼, 바다와 물 기름지고 살기좋은 가멸한 고을이라 「옥당(玉堂)」(고을이
된 곳에,

저 용두사(寺) 용깃대의 「미르」=용이 푸른하늘 높이 흰구름 차고, 펼쳐이는 빛깔
깃발 물고는 부신 햇살 되받아 번쩍 금빛내며 바람 가르고 불쑥 솟구쳐 날아 오르
듯 처럼, 영광 樂 영광—「옥당골」을 굽어보는 볼 만했을, 「즈믄(1,000)」해를 지켜온
사랑스런 이 돌깃대에 깃발 당당함 그려본다.

마라난타스님 불전(佛傳-백제初傳)의 땅답게 우뚝 서 금상첨화로, 더질더질~



선각 용두당간

마침, 연구반 5월답사하고서- 옛즐김이(樂古堂, 110-011@hanmail.net)

삶과 죽음이 뒤섞인 갠지스

강혜연 | 회원

여행은 일상으로부터의 떠남이며,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와의 만남이다. 설레이는 기다림과 짜릿하게 느껴질 감동을 그리며 인도에 다녀왔다. 12박 13일의 일정을 힘든 줄도 모르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듯 과거의 인도 속으로 들어갔다.

인도하면 종교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종교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도의 문화이며 역사이다. 뉴델리 남동쪽 약 140km 지점에 있는 마투라 지역은 쿠산왕조와 굽타왕조시대에 융성했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문화, 종교, 정치의 중심지로써 중인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불교 관련 상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토속 신에 대한 신앙이 불교와 융합하여 출현했을 것으로 본다. 당당한 기상과 박진감 넘치는 강인한 얼굴, 양감이 풍부한 사실적 신체 표현 등은 간다라 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불상들을 마투라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곳은 규모는 작았지만 독특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도너츠 모양의 원형 건물로 중앙에는 조금은 단조로운 정원이 대칭으로 꾸며져 있다.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이라 카메라에 많이 담아왔다.



마투라 박물관

아우랑가바드의 아잔타 석굴은 B.C 2 ~ A.D 7세기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말발굽 모양으로 휘어진 와그라강을 끼고 약 500m에 걸쳐 30여개의 불교석굴이 있다. 8세기로 접어들어 불교가 쇠퇴함에 따라 아잔타는 밀림에 파묻혔으나, 1819년 사냥 중인 영국군 병사에 의해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석굴 안은 승려가 거주하는 승원과 스투파도 세워져 있으며, 특히 아름다운 벽화로 유명하다. 이런 양

식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일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다고 한다. 승려들이 雨期에 비를 피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을 시작으로 제13굴까지는 불탑과 발자국, 보리수 등으로 부처를 표현했으며, 이후에는 불상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그 규모와 섬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를 버스로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하니 엘로라 사원이 있었다. 돌을 파내 만든 엄청난 규모의 A.D 7 ~ 11세기까지 계속 만들어진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사원이다. 그 중 최고의 건축물은 16번 굴인 힌두교 사원으로 쉬바의 거처이다. 길이 90m, 너비 45m, 높이 30m의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일반 석굴과는 달리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왔다.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 앞에서부터 파들어가는 축조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감탄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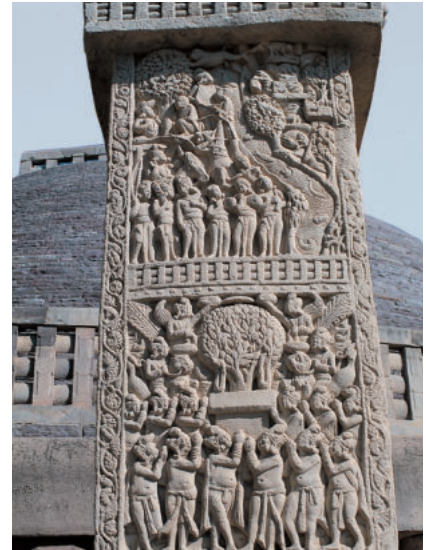
산치 대탑을 보기 위해 부사발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호수의 도시 보팔에 갔다. 산치는 B.C 2 ~ A.D 1세기에 축조된 기념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성지이며 A.D 12세기까지 불교의 중심지였다. 커다란 반구형의 스투파는 지름 36.5m, 높이 16.4m의 대탑이다. 탑에는 동서남북으로 10m 높이의 문이 있으며 문에는 불전도, 본생도와 문양 등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바라나시는 갠지스 강의 중류인데 힌두교의 유명한 성지이다. 강가의 성스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면 정신과 육체가 정화되고, 여기서 죽어 그 재를 강으로 흘

려보내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든다. 갠지스의 가트에서 인도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火葬하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이 현실 속에서 함께 한다고 느껴졌다. 우리들이 느끼는 생과 사의 시간차보다 그들의 시간차는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인의 80%가 믿는 힌두교는 여러 면에서 색다른 종교이다. 복과 안전을 소박하게 비는 기복종교이지만 한편으로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기득권을 위해 하층민을 얽매어 놓은 사슬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인간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철학이기도 하다. 힌두교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자리잡고 있는 삶의 중심이라 느껴졌다.

첫인상의 인도는 많은 거지들, 불결한 화장실 그리고 심각한 교통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인도만의 매력을 찾을 수 있었다. [\[7\]](#)



산치 탑



우리의 문화재 애호심은 영점

김 재 원 (1909~1990)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

외국 박물관에 가서 놀라는 것은 어디를 가거나 중국미술품이 많다는 점이다. 나라가 크고 역사가 오래니 문화재가 많을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세기 말부터 서양 세력이 밀려올 때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면서 문화재를 간수하는 힘이 약해져서 이리데 같은 서양 사람들의 약탈에 많은 문화재가 외국으로 흘러간 것이다. 운강이나 용문 같은 유명한 석굴사원에는 머리가 떨어져 나간 부처님의 모습이 많은 만큼이나 서양의 유명한 미술관에 중국 미술품이 없는 데가 없다. 이런 약탈행위 뒤에는 항상 중국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음

은 말할 필요도 없다. 파리에 본거를 둔 盧라는 사람의 회사가 중국 미술품을 외국에 빼내는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20세기 초에는 서역 지방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대규모의 탐험대가 파견되어 돈황을 위시하여 투르판, 고창 지방의 벽화 등이 그들 나라에 약탈되어 갔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넓고 역사가 오래되어서 많은 문화재가 새로 나오고 또 운강, 용문 등에서 많은 문화재가 약탈되

었다고는 하나 그곳에는 아직도 수십 배의 미술품이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은 옛날부터 궁중에서 문화재를 수집하는 전통이 있는 만큼 북경의 고궁박물관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장품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일부가 현재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와 있다고는 하나 북경의 고궁박물관에서 그 많은 것이 빠져나간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놀랄 정도로 희박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문화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여보라. 어느 선대에서 쓰던 물건, 설령 그것이 미술적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더라도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가? 이 경우 가보란 반드시 값비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미술품으로는 고려자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려자기 같은 것은 지금도 수만 점이 전하여 내려오며 그야말로 한두 점쯤은 외국의 미술관에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80~90년 전에 무덤에서 도굴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며 전세하여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를테면 조선왕조시대 때 살았던 선조들은 고려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여 버린 것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그때의 고려자기를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나라 선비 계급에게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훌륭한 문방구, 술잔, 주전자 같은 것에서 당시 풍류를 사랑하던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귀부인들이 쓰던 격조 높은 화장 도구 같은 것은 다른 나라 도자기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귀족 취미를 들지 않더라도 소박한 조선 왕조시대의 백자나 평민계급의 질그릇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유물들이 각 가정에서 전해오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옛 것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졌다. 왜 우리들의 생활감정이 그렇게도 거칠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상숭배라는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건만 조상이 만들어놓은 문화재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없어졌을까.

하기는 근래에 와서 옛 가구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옛 가구를 본떠 만든 물건이 눈에 띄는 것은 기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보면서 사는 가구 같은 것이 우리의 생활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은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바이다. 그것은 애항심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東西를 넘나들며』 중에서

봄, 여름 그리고 늦은 가을

— 檀園大展을 보고

진수옥 | 회원

그림을 보는 일은 남을 보는 일이고 또 미루어서 나를 보는 일이기도 하다.

간송 미술관에서 열린 단원대전. 당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김홍도는 아직도 뜨거운 관심의 한복판에 있다. 무엇이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끌어 그의 그림 앞에 서게 만드는 걸까. 세련됐으나 넘치지 않는 기교, 힘찬 기운에서 비롯된 시원하고 간결한 화면, 그리고 시를 읽는 듯한 서정성 등이 두루 갖춰진 그림들 앞에서 우리는 잊었던 미감의 원형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의 원형적인 미감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멋있는 것이어서 새삼 기쁘고 만족스럽다.

그림은 봄에서 시작된다. 少年行樂이라는 제목 아래 때는 바야흐로 인생의 봄. 이제 막 물이 올라 연한 잎들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드나무 두 그루가 주인공이다. 어린 연두빛 잎새들이 햇빛에 눈부신데 화면 한 쪽에서 말을 탄 소년이 등장한다. 가볍고 경쾌하다. 말발굽의 또각 따가닥 소리가 들릴 듯 말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 아니 살짝 뛰는 느낌이다. 소년은 오른손으로 잡은 고삐를 왼쪽으로 휩 나꿔채서 버드나무 아래 푸른 풀밭 길로 접어든다. 굵은 선의 버드나무는 아련한 빛에 감싸여 있는데, 말과 소년은 가는 선으로 간결하게 처리해서 가볍기 그지없다. 畫題는 당나라 崔國輔의 시 「少年行」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한다.

산호채찍 그만두니, 백마는 제멋대로 가고, 장대에서 버들을 꺾으니, 봄길 위의 정취라네.

遺却珊瑚鞭 白馬驕不行 章臺折楊柳 春日路傍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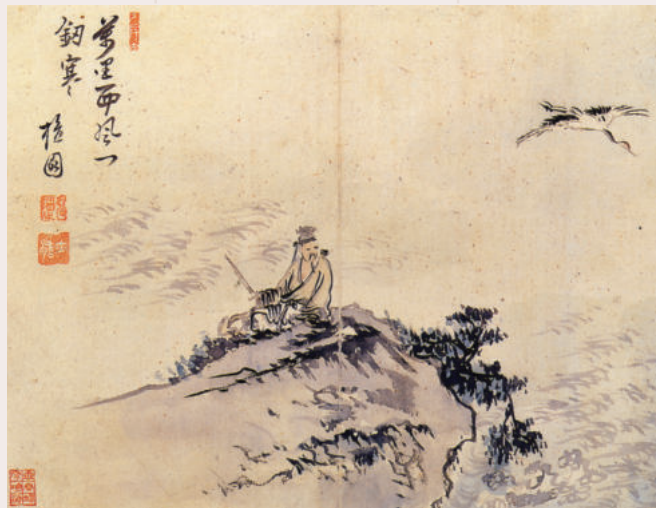
봄바람에 휘날리는 버들잎. 버들은 봄의 정서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누구나 근원을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에 들뜨게 만드는 열쇠말이다. 더구나 이제 막 인생의 봄을 지나는 소년에게는.

무르익은 인생의 모습은 劍仙觀瀾의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채찍대신 버들을 흔들었던 그 손엔 이제 묵직한 검이 잡혔다. 신록처럼 싱그럽게 살며 시 등장했던 소년은 검선이 되어 내리찍는 햇빛 아래 망망한 물과 마주했다. 화면 중앙으로 쪽 번친 바위에 앉아 한 마리 학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엔 수염이 보기 좋을 정도로 덮였다. 화제는 萬里西風一劍寒. 검선의 모델인 당나라의 도사 여동빈은 마음가짐과 행동이 고결하였으며 글과 글씨에 뛰어났고 후에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주로 검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검은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번뇌를 끊는 상징이라고 한다. 단원이 그를 소재로 그린 여러 작품 중의 하나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인생의 정상에 선 검선, 그는 지금 물을 들여다본다. 물을 바라보는 것은 곧 자연의 흐름을 읽는 일이자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일. 그 마음은 검처럼 단단하고 학처럼 자유로우며 물처럼 거침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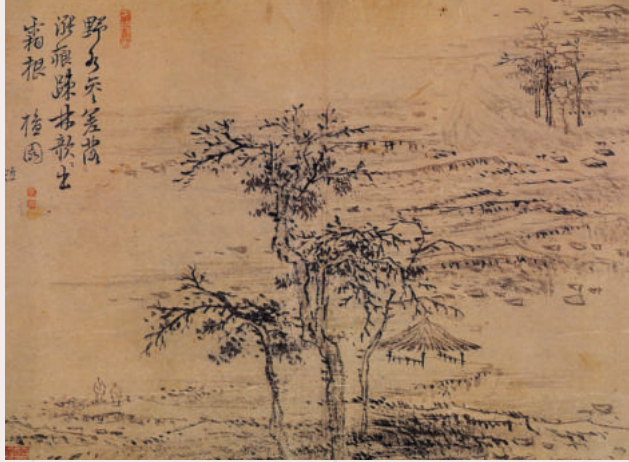
그리고 늦은 가을. 주인공 검선은 어디로 갔을까. 疏林野水の 자연 속으로 들어가 화면의 배경이 되었다. 늦가을은 겉으로 드러나던 꾸밈과 화려함이 사라진 때, 본디의 모습이 드러나 숨길 수 없는 때, 그래서 물마저 여름처럼 요란하고 넘치지 않으며 조용히 안으로 흐르는 때다. 물가의 정자 지붕 역시 성글어져서 세상의



少年行樂(紙本淡彩 26.0×21.8cm)



劍仙觀瀾(紙本淡彩 30.5×23.2cm)




疏林野水(紙本淡彩 26.0×21.8cm)

모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때다. 멀리 다리는 보이지만 물은 얼어붙은 듯, 거의 스며든 듯, 화면전체는 갈필로 표현되어 버석거리고 메마르다. 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가에 서있는 두 사람. 말을 주고받는 중인가, 한 사람은 뒷모습을 보이고 또 한 사람은 손을 모으고 있다. 서로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는 그저 아무렇

지도 않은 사이, 이미 물같이 담백한 사이가 되었을까. 인생은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었고 자연과 하나되어 움직임이 없어졌다. 다시 정물로 돌아갔다. 인생과 자연이 결국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됨을 말해주는 걸까. 그 때가 되면 마주 보고 있는 너와 나도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될까. 그래서 마침내는 삶과 죽음마저 다르지 않게 될까. 이제 소년도 김선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배경이 된 두 사람이 보일 듯 말듯 아스라하다.

들물 분고 줄어 넘친 흔적 남았는데
 높낮은 성긴 수풀 뿌리까지 서리 맞네.
 野水參差潑漲痕, 疏林欹短出霜根

소동파도 시도 단원의 이 그림에 자리해서 뜻이 분명해지고 빛난다.

시와 그림, 삶과 예술을 붓 하나로 간단하게 녹여낸 단원. 그의 그림엔 빛나는 봄과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량하고 미묘한 가을이 있다. 정직하게 뒷모습을 보이며 조용히 사라지는 노년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그의 그림은 지금처럼 깊게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의 깊이에서 오는 그들이 이처럼 담담하면서도 어둡지 않다면 삶이란 한 번 살아볼 만한 것이리라. 

6~7세기 동아시아 조각양식의 전파와 공유(2)

-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곽 등 석 (국립청주박물관장)

머 리 말

1.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형식적 특징
2.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系譜
3. 法隆寺 獻納寶物 143號 金銅一光三尊佛의 국적문제
4.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과 백제조각

맺 음 말

3. 法隆寺 獻納寶物 143號 金銅一光三尊佛의 국적문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초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던 金銅一光三尊佛은 일본의 고대 조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法隆寺 獻納寶物 143號 金銅三尊佛(이하 143호 삼존불로 약칭)이다. 앞장에서도 살펴본듯, 이 삼존불은 제작기법상 三尊別鑄 結合式 金銅一光三尊佛의 기준작이며, 부드러운 조형 감각과 제작기법 등에서 48體佛 가운데에서 백제 불상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본존불에서 우선 눈에 띠는 것은 은은한 얼굴 표정과 당당한 체구로, 이는 당시 일본 조각의 주류였던 이른바 止利派 불상들의 경직된 표정과 평면적인 신체조형과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같은 형식의 여래입상인 法隆寺 獻納寶物 149호 금동여래입상과 비교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두 像은 각각 높이 31.4cm(143호)와 27.4cm로 크기는 별 차이가 없지만 조각 양식은 판이하다. 장방형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두 뺨은 측면관에서도 굴곡이 없어 평면적이다. 눈은 杏仁形의 살짝 뜬 모습이지만 눈초리가 위를 향하고 있어 눈매가 날카롭다. 콧등이 가늘고 직선적인 반면 콧방울은 상당히 폭이 넓다. 이 콧방울 가장자리는 심하게 패여 있으며, 윗입술은 인중을 경계로 좌우로 날카롭게 휘어져 언뜻 보

면 카이저 수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콧방울에 잔뜩 힘을 주었을 때의 근육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맞물려 전체적으로 칼로 빚은 듯 경직된 표정을 자아낸다.

장방형의 신체도 평면성을 탈피하지 못하며, 두 겨드랑이가 몸에 밀착되어 위축된 모습이다. 通印의 手印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정면관으로 표현된 두 발도 짧고 서로 맞붙어 평면적이다.

반면 143호 삼존불은 턱이 짧은 계란형이며 지그시 내려감은 가녀린 눈매와 통통하게 부풀은 뺨, 양 입술 꼬리를 살짝 눌러 표현한 고졸한 미소 등에서 전체적으로 온화한 표정이 역력하다. 두 눈썹선과 눈동자의 가장자리에 주물 뒤 한 줄의 음각선을 덧붙인 수법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불에 흔히 보이지만 止利派 불상에서는 볼 수 없다. 渦文의 머릿결 표현은 이례적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止利派 불상에서 보기 힘든 온화한 얼굴 표정은 공주 儀堂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과 부여 窺岩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과 같은 백제 조각의 조형 감각과 통한다.

신체는 허리가 짧은 長身形이며, 어깨가 넓고 복부가 약간 튀어 나와 신체의 볼륨이 엷보이고, 두 발을 비스듬히 벌린 자세에서 당당함이 느껴진다. 通印을 맺은 두 손도 신체에서 분리되어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입체적이며, 인지와 장지를 편 與願印의 왼손과 施無畏의 오른손은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서 미묘한 動勢가 느껴진다.

두 여래상은 大衣의 착용 방식과 옷주름 형식도 판이하다. 현납보물149호 여래입상은 오른쪽 어깨에서 늘어진 옷자락 끝이 가슴 앞에서 가로질러 왼쪽 팔뚝을 감싸고 드리워지는 형식이며, 속옷의 띠매듭은 가슴에 밀착되었고, 平板을 잇댄 듯한 옷주름은 좌우 대칭적이어서 변화가 없다. 반면 143호 본존불의 着衣法은 오른쪽 어깨에서 넘어온 옷자락 끝이 몸 앞을 가로질러 그대로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는 형식이며, 따라서 뒷면에는 왼 어깨로 넘긴 옷자락이 단정히 표현된다. 특히 몸 중심선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쓸리도록 표현한 층단식 옷주름은 강한 볼륨과 율동적인 흐름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조각가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着衣法의 여래상은 扶餘 佳塔里출토 金銅如來立像과 강원도 橫城출토 금동여래입상, 그리고 宿水寺址출토 금동여래입상의 예에서 보듯이 삼국에서도 다소 늦은 시기인 7세기 전반기에 등장하는데, 특히 扶餘 佳塔里출토 金銅如來立像은 신체 조형과 着衣法은 물론 세부 무늬까지 143호 본존불과 같다.

현납보물 143호 삼존불은 大光背의 意匠에서도 백제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大光背의 意匠은 기본적으로 삼국시대의 金銅一光三尊佛과 동일하지만, 본존의 頭光 光心部에 새겨진 바퀴살 형태의 光線文과 忍冬唐草 줄기 위에 化佛을 배치하는 수법은 오직 백제 조각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이다. 특히 불꽃이 세 갈래로 나뉘고 그 하부 좌우에 고사리 모양의 돌기가 중첩되면서 마치 印花한 듯 질서정연한 龍文系 火焰文의 형식은 瑞山磨崖三尊佛이나 益山 蓮洞里石佛坐像 광배와 같은 백제 조각에서 定型화된 意匠의 하나이다.

현납보물 143호 삼존불은 製作技法에서도 당시의 일본 금동불과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밝고 중후한 도금, 주물 뒤에 끌로 눈썹선을 線彫한 점, 본존의 발을 치맛자락 속에서부터 成形한 점, 鑄物時 內型을 고정시키기 위해 型持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銅못을 사용한 점, 그리고 상반신에 氣泡 자국이 많이 몰려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飛鳥時代의 금동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로서, 당시의 일본 금동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주물되었음을 뜻한다.

더욱이 현납보물 143호 삼존불과 동일한 意匠의 光背는 副

葬品으로서도 출토된 바 있는데, 일본의 那智山 經塚(현 東京 國立博物館)에서 출토된, 불에 뒤틀린 銅製光背의 左上部片은 火焰文의 형식과 合掌한 化佛의 모습, 그리고 頭·身光帶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한 唐草 줄기 위에 化佛을 배치한 방법 등이 현납보물 143호 삼존불의 그것과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비추어 법륜사현납보물 143호 삼존불은 한반도, 특히 백제에서 제작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더욱이 이 삼존불의 원 소장처인 法隆寺 金堂에 일본의 飛鳥彫刻을 대표하는 대형의 金銅一光三尊佛이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본 고대조각에 끼친 현납보물 143호 삼존불의 영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4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과 백제조각

일본의 奈良 法隆寺 金堂의 釋迦三尊像(623)은 飛鳥彫刻을 주도했던 止利樣式의 대표작으로, 그 형식이 한반도에서 크게 유행했던 金銅一光三尊佛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釋迦三尊像은 커다란 蓮瓣形 光背를 배경으로 木造 四角臺座 위에 안치된 坐像 形式의 三尊別鑄結合式 一光三尊佛이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金銅製의 一光三尊佛은 남아 있지 않지만, 忠南 燕岐 지방에서 발견된 癸酉銘阿彌陀三尊佛碑像은 金堂 釋迦三尊像의 系譜 추정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碑像은 통일신라 초기인 673년에 백제의 遺民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이었던 百濟 彫刻樣式으로 조성한 귀중한 예로, 전반적인 양식은 7세기초라고 편년해도 좋을 정도로 古式을 띠고 있다. 비록 재료는 돌이지만 높이 43cm의 小形이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小金銅佛처럼 미술양식 전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협시의 수가 8구에 이르지만 銘文의 내용으로 보아 기본 구도는 三尊佛을 의도했음이 분명하며, 실제 좌우 끝의 보살을 제외한 나머지 협시들을 제거하면 구도적으로 一光三尊佛의 定型을 나타낸다.

본존불은 裳懸座의 형식은 물론 通印의 수인, 왼쪽 손목을 감싸 내린 大衣의 착의법, 하단에 연판이 배치된 四角臺座의 형식 등이 서로 흡사하다. 더욱이 본존의 경우 頭部와 어깨, 무릎 바깥면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등

변삼각형을 이루며, 또 이 선을 연장하면裳懸의 외측면으로 연결되고 있어 양자는 미리 계산된 일정한 조형을 속에서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닥에서 피어오른 연꽃 위에 협시보살을 배치한 방법도 서로 동일하며, 특히 왼손을 위로 들고 오른손을 허리 근처에 내린 手印과 하트 모양의 광배 형태는 癸酉銘阿彌陀三尊佛碑像과 동일 彫刻 流派의 작품인 癸酉銘千佛碑像과 같다.

연관형 광배의 테두리에 奏樂天을 배치한 점, 바깥에 넓은 테두리를 돌리고 그 내부에 다시 連珠文을 돌린 頭光의 형식, 頭光 頂部에 蓮花座上의 寶珠를 배치한 점, 그리고 化佛과 火焰文의 구성 등, 두 像은 大光背의 형식도 매우 비슷하다. 차이점을 지적하자면, 癸酉銘碑像의 광배는 頭光과 身光에 내부에 唐草文이 없고 化佛이 5구로 줄었으며, 또 화염문은 虺龍文系가 아니라 唐草文 계통이라는 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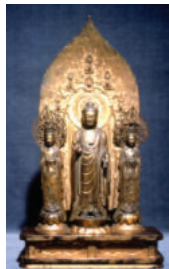
특히 법룡사 석가삼존상 광배의 화염문은 虺龍文系이면서도 휘룡문 특유의 날카로운 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唐草文처럼 圖案化된 모습이며, 광배 尖部의 불꽃이 독립된 단위 불꽃을 이루고 또 불꽃꼬리가 상부에서 거의 수직으로 경직되었다. 이러한 화

염문은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고, 益山 蓮洞里 石佛坐像의 광배에서 보듯이 한반도, 그 중에서도 百濟에서 정형화된 형식이다. 또 불꽃의 내부에는 깃털처럼 미세한 평행선을 불꽃 방향을 따라 정교하게 음각하였는데, 光線文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평행선을 베푼 예는 삼국시대의 金銅光背에서 흔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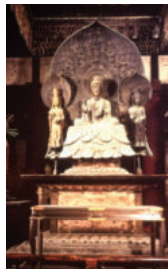
法隆寺에는 金堂 釋迦三尊像과 같은 형식의 一光三尊佛인 戊子銘(628) 銅製釋迦三尊像이 봉안되어 있어 주목되는데, 止利樣式으로 분류되는 이 삼존불 역시 부드럽고 온화한 조형감각에서 백제 조각의 영향이 엿보인다. 이들 2구의 법룡사 삼존불들의 본존은 정돈된 주름의 특징적인 裳懸座로 구성되었는데, 치마는 아래쪽이 좌우로 벌어진 안정된 형태에, U자 모

양의 평면적인 옷주름을 하나의 단위 주름으로 하여 상하 2단으로 엄격하게 반복시켰으며, 각 단위 주름이 만나는 곳에 다시 두 겹의 ㄴ자형 주름을 두고, 치마 하단의 각 단위 옷주름 사이사이에 다시 蓮瓣 형태의 옷자락이 비죽 나와 있다. 일본에서는 이 형식의 원류를 중국의 龍門石窟 賓陽中洞 本尊이나 南朝 梁의 석불좌상에서 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동일한 형식의 裳懸座는 중국 조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백제 조각에서만 발견된다. 충남 靑陽에서 발견된 백제의 陶製 臺座(높이 90cm, 국립부여박물관)는 법룡사의 그것과 형식이 동일한 裳懸座이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일본 飛鳥時代의 裳懸座 如來坐像 형식의 一光三尊佛의 祖形을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큰 중국의 北魏 또는 南朝 彫刻에서 구하기 보다는 삼국시대 조각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의 변형을 거쳐서 일본식으로 확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金銅三尊佛立像(法隆寺獻納寶物143호), 飛鳥 또는 百濟 7세기 초, 本尊高 28.7cm, 東京國立博物館.




法隆寺金堂 金銅釋迦三尊佛坐像, 飛鳥時代 663년, 本尊高 86.4cm, 일본 奈良 法隆寺.



癸酉銘阿彌陀三尊佛碑像, 통일신라 673년, 像高 43cm, 국립정주 박물관.

맺음말

한반도에서 하나의 定型을 획득하게 되는 삼국시대의 金銅一光三尊佛은 국내의 것과 일본에 있는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 여

軀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이 소형이며, 또 삼존불 자체는 정면관 중심으로 조각되었기 때문에 공예적인 성격이 짙다. 그러면서도 삼국시대의 金銅一光三尊佛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삼국 사이는 물론 對外的으로도 樣式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金銅一光三尊佛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한 예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의 山東 지역과 일본에 전하고 있고, 또 일본의 초기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法隆寺의 一光三尊佛들 역시 한반도의 그것과 형식이 같다는 사실은, 6~7세기 東아시아 彫刻史의 전개과정에서 차지하는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媒介者的 역할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절반은 즐기고, 절반은 듣고

손진주 | 회원

박물관 특설강좌가 시작된 지 몇 해 되지 않았을 때, 이 강좌에 대해서 들었다. 문화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폭 넓은 강의내용이 펍 마음을 끌었다. 직장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강의는 주중의 낮시간 밖에 없어 실망스러웠다. 그 뒤로 한 20년간 박물관 특설강좌는 내 수첩의 하고 싶은 일 목록에서 계속 잠자고 있었다. 매해 연말, 수첩 정리하다 한번씩 물어보면 여전히 낮시간만 있어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고 나중에는 아예 지워 버렸다.

특설강좌의 존재조차 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사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서히 직장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28년 동안 한 달 이상을 계속 쉬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성실하게 하여왔던 일들이 언젠가는 정말 원하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에 눌러 빛을 잃어갈 무렵

이었다. 고맙게도 회사에서 조기 퇴직 제도를 실시하였다.

룰루~ 랄라~ 무얼 하고 놀까? 여행도 가고, 좋은 강의도 듣고, 미술관, 음악회, 연극, 영화 즐거운 공상에 젖어 있다가 박물관 강좌에 다니자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 맞아! 20년씩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인연이 없나 보다고 지워버렸던 이름…… 기억 속에 흐려져 가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기초반에서 '절반은 즐기고 절반은 나누어 듣자'고 하였던 우스개와는 달리 전혀 즐겁지 않았다. 작은 간이 책상, 별로 편하지 않은 의자가 옛날의 신선한 기분을 되살려 놓았을까? 아니면 1학기, 또는 1년의 과정을 4시간에 하려니까 너무 쫓긴다면서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던 강사님들의 열성 때문이었을까?


문제는 50살이면 평준화 된다는 두뇌 즉,

기억력이었다. 땅을 고르고, 초석, 골조, 지붕, 벽 그리고 내부 장식을 하듯 마치 터를 닦아 짓는 집같이 선명하게 그려졌던 그림들이 수업이 끝나면서 짙은 안개 속에서 흐려졌다. 30대 교수는 아는 것 이상으로, 40대 교수는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5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 60대 교수는 그날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는 어느 강사님의 말씀처럼 나이에 맞는 수강생으로 있자고 마음 먹으니 더욱 즐거워졌다. 계절 따라 달라지는 경복궁 뜰의 꽃과 나무들, 멀지 않은 인왕산 봉우리, 신선한 공기, 촉촉한 봄비, 가을바람, 박물관에서의 전시회, 도서관의 책들,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 병졸들이 문 옆에 앉아 쉬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왕비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보너스였다.

연구강좌 6과목이 각기 4년씩이니 앞으로 24년은 꼭 살자고 친구와 웃으며 약속했다. 기초반 매주 4시간씩의 강의가 연구반에서는 신청자가 많다고 2과목 수강도 허용하지 않는데다가 격주 2시간씩이라 허전하였다.

연구반의 들어와 공예사 시간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라는 말에 감동도 하고, 따라 그리기도 어려웠던 한자 실력에 질리기도 하면서 한 해가 지나갔다. 건축사에서는 1년의

커리큘럼을 주고 시간마다 지난번 교육 내용을 요약한 후 시작하여, 2주 만의 교육이 연속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다. 강의를 들을 때 관련도서를 읽고 연구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감탄스러웠다.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읽은 도자사 시간은 강의 중에 책 내용이 어찌다 기억나기도 했다. 답사에도 점점 재미가 붙었다. 답사 때 만나게 되는 이름 모르는 친숙한 얼굴들, 짹 입을 다시는 듯한 맛깔스러운 설명, 白眉는 작년 5월 2박3일의 경주였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또 다른 이유로 몇 번 갔었지만,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는 남산과의 새로운 만남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힘든 일정의 피로도 느낄 수 없게 하였다.

잊어버림에 대한 조금의 스트레스도 없이 나는 행복하고 고맙다. 듣고 보는 동안 즐거우며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로 흘러가지만 때로는 머리로 돌아서, 때로는 가슴에 머물다 사라지니까…… 앞으로도 20년간 불교 미술사, 한국사, 동양사, 사상사, 고고인류학들이 나를 조금씩 채색하여 설명할 수 없는 빛깔로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바란다. 

한국박물관회 문화재 기증

윤 종 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사)한국박물관회는 1989년 녹청자 벼루 기증을 필두로 2002년 화각함, 2004년 베트남 도자기 등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하였다.

2005년 3월 14일에는 위창필 병풍, 지도 2점 등의 문화재를 또다시 기증하였다. 이 병풍은 葦滄 吳世昌(1864-1953)이 을축년(1925)에 쓴 전서 10폭이다. 선생은 3.1운동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 운동과 언론인으로 활동한 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근대 서화단체 활동을 이끈 예술가이며, 높은 감식안으로 고서화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槿域書畫徵』, 『槿域書徵』, 『槿域畫徵』, 『槿域印藪』 등의 책을 남긴 서화 연구가이다. 위창은 부친 亦梅 吳慶錫으로부터 清朝文物思潮를 접했고, 집안에 전해지는 서화와 금석문탁본, 전각 등을 통해 篆書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그는 30대 중반부터 전각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50세 이후에는 전서에 전념하였다. 위창은 眉叟 許穆 이후 끊어진 전서의 전통을 되살렸고, 金石文에서부터 大小篆, 瓦當文 등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 병풍에는 중국 秦·漢代의 기와 및 周, 秦, 漢代의 鐘鼎등의 청동기에 있는 글자와 그에 대한 주석을 썼다. 청동기의 글자는 전서 중에서도 진시황 문자통일 이전의 大篆體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기와와 전돌의 글자는 한대의 예서 중에서도 古隸체를 써서 전서에서 예서로 발전되는 변천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 이 병풍은 그의 전서 글씨가 한참 무르익던 시기인 62세 때의 작품으로 그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 이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과 김종춘 소장품이 있다. 고려대 소장품은 1923년에 쓰여진 것으로 역시 周, 秦, 漢代의 鐘鼎金石文과 秦·漢代의 와당 글씨를 그대로 쓴 六幅篆書屏風이다. 김종춘 소장품은 1928년의 것으로 周代의 南宮鼎銘文과 秦·漢代의 와당 글씨를 베껴 쓴 것이다. 위창의 전서는 회화적



위창 오세창의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1925년, 비단에 먹, 29×123.5cm)

조형성보다는 자신의 목직한 筆劃을 구사하고 있다.

청주군지도는 청주군 내일면 수락리의 지적도로 크기는 99×65cm이다. 지적도에 忠北 淸州郡 內一面 水落里 有租地 見取圖라는 제목과 明治 45년(1913년) 6월 11일 보수 제도자 尹正鉉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 등고선, 토지와 대지 측량 결과와 지번으로 추정되는 일련번호 아래에는 지목(畓, 田, 宅地)과 면적 소유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소하천은 청색, 도로는 붉은색으로 표현하였으나 축척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지적도는 근대의 조세를 위한 토지제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국과 일본지도에는 “The empire of Japan, devided into seven principle parts and subdivided into sixty six kingdoms : with the Kingdom of Corea, from Kemper and the Portuguese. London, Printed by Laurie & Whittle 53 Fleet street as the Acts directs 12th May 1794”라는 타이틀이 있다. 이 지도는 Robert Sayer(1725-1794)가 제작한 것으로 그의 사업체가 Robert Laurie와 James Whittle에게 인수된 이후의 것이다. 1750년에 제작된 Gilles Robert의 지도와 Lemire du Japon을 정확히 재현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다. 이는 Kaempfer와 Scheuchzer 의 1727년 일본지도 및 여타 지도들의 영향으로 한층

지리적 현실에 접근한 인상을 준다. 1796년에 출판된 지도첩 A New Universal Atlas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전체 크기는 72.7×53.0cm이며, 圖廓은 63.2×47.3cm이다. 특히 동해를 Corean Sea로 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은 Sior로 명기하였으며, 경상도는 구획은 있으나 주기가 없는 점도 특이하다. 이외에 PINGGAN(평안), HOANGHAY(황해), TSUTSIN(충청), TCHUENLO(전라), HIFNKING(함경), KIANGYUEN(강원), KINGKI(경기)도 등의 한국 지명표기와 Yedo(에도), Tsusima(Tui-la-tao), NIPHON(일본) 등의 명칭도 흥미롭다.

한국박물관회의 잇따른 기증은 선진 박물관의 척도가 되는 기증문화 확산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러한 기증은 국민 참여 박물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용산 새 박물관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기증자인 한국박물관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청주군 지도(1913년, 종이에 수묵, 채색, 99×65cm)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1794년, 종이에 동판인쇄, 채색, 72.7×53cm)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 會 長 | 俞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碩玉
 千信一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평생·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다기 상임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다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容允 한국박물관회 이사
 李 鶴 우학문화재단 이사장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 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 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사무실이 울산 새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매듭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보고 또 보지 못하여
더 그림다 (水)

開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눈을 떴다.
환한 빛으로 가득찬 몸
날아갈듯하다. (河)

집은 새 집이 좋은데
동네는 옛 동네가 아직 그림다.
그러니 너 참 똑똑도 하지, 달팽이. (진)

나의四季를 채워주던
두고온 은행나무의 빈자리를
하늘빛 닮은 거울못이 채워주려나... (愛)

낮설기만 하던 길,
어느날 초롱꽃이 반긴다.
정겹다.
마음에 담길 이야기들을 예감하듯이. (선)

가만, 가만, 숨을 죽이고
작은 설레임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다. (리)

거대한 나무가 세워졌다.
나는
춤추는 풀잎으로 살고싶다. (정)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10호

발행일 | 2005년 6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욱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서미선 정미희 정혜리 조애경 진수옥 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790-5090~3
팩시밀리 : (02) 790-508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seummember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한국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790-5090~3
팩시밀리 : (02) 790-508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seummembers.org